

# 부산체육

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JULY 2021 VOL.17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자문

김재도 원로 인터뷰

##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농구협회 회장

전철우 인터뷰

## 구·군체육회를 가다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는 도시,

얼썩, 건강! 얼썩, 동래!

동래구체육회





## CONTENTS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자문 김재도 원로

부산산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농구협회 회장 전철우

선한 영향력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동래구체육회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는 도시, 얼썬, 건강! 얼썬, 동래!



**학교체육 탐구생활** 금정중학교 족구스포츠클럽

우승 트로피만큼 빛나는 '우리'의 가치



**BSC 뉴스**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개최  
'삼중고' 올림픽 "철저히 준비, 선수 안전도 金 딸 것"

# 부산산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중학교 때 특별 활동이었던 생물반을 하면서 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김재도 원로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등산 활동을 시작했다.

“산 정상에서 광활한 자연을 보다 보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어요. 커다란 자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세를 배우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계기가 돼요.”

## 영광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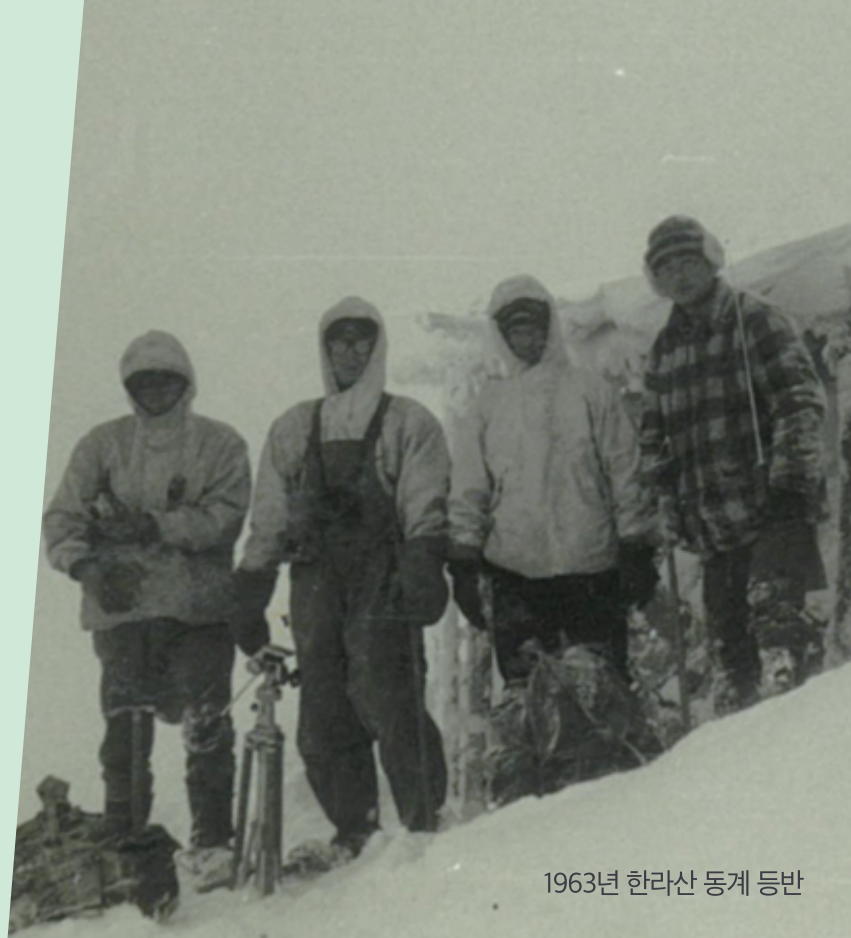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자문  
김재도 원로





1963년에는 60년 만에 최대 한파와 폭풍설을 뚫고 한라산 동계 등정에 성공했다. 또한 대한산악연맹 부산·경남연맹의 초대 기획이사를 맡아 연맹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앞장섰다. 1981년 소규모로 운영하던 등산학교를 통합해 부산등산학교로 개교했고, 현재는 부산광역시장배 전국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로 알려진 대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특히 1970년에 개최한 범산악인대회는 부산산악문화축제로 행사명이 바뀌어 오늘날까지도 올바른 산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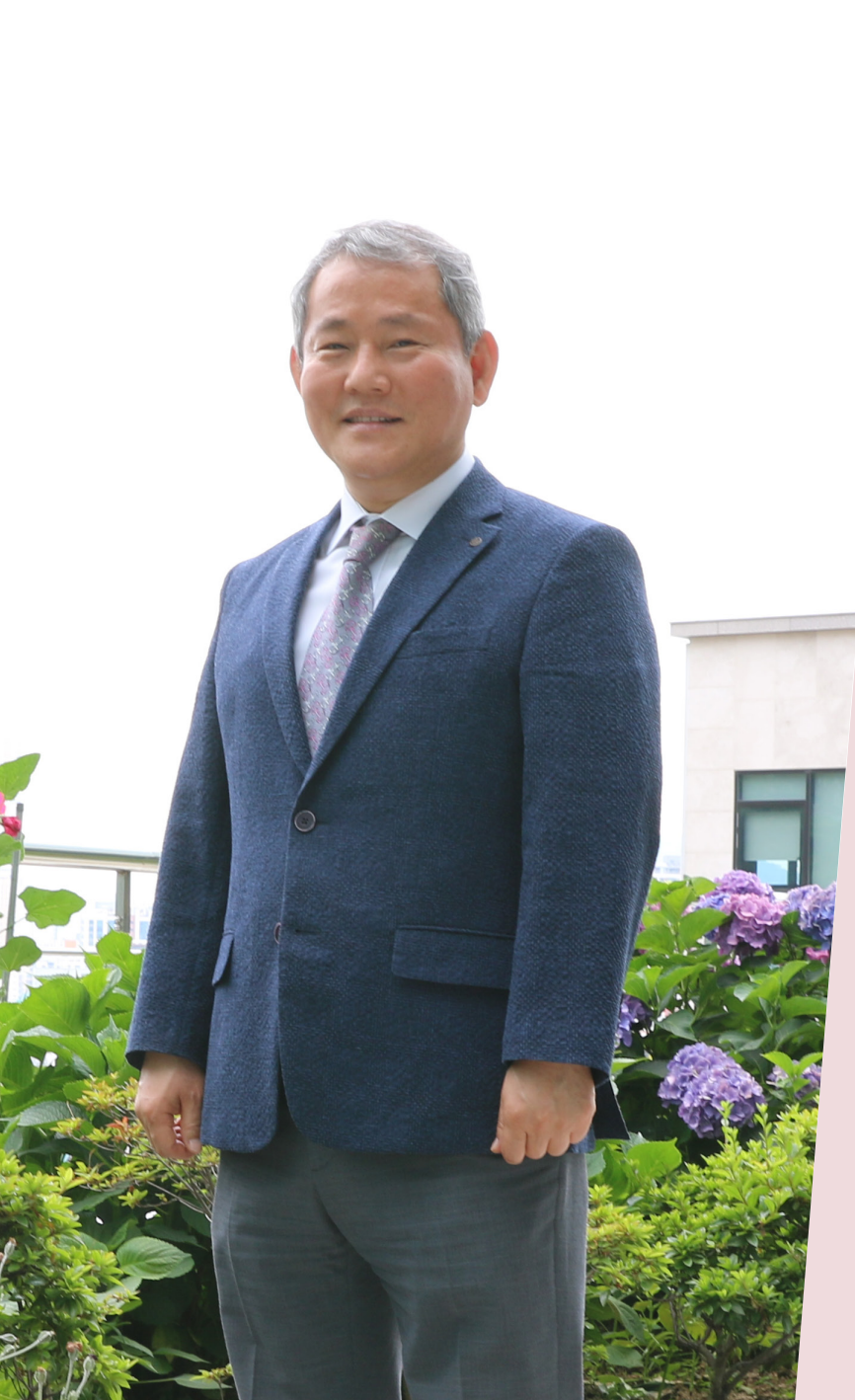
“올바른 산악인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산악연맹에서 실시하는 다변화된 등산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해야 해요. 그리고 산악회 간에 등산 정보를 교류하고, 유대를 돈독히 갖추어 나갔으면 해요.”



1963년 한라산 동계 등반







## 선한 영향력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다

“농구는 장점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작은 골대 (바스켓, Basket) 안에 공을 넣었을 때의 성취감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죠. 팀 경기를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 판단력이 좋아지고, 여러 사람과 협력하다 보면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농구가 인기 종목으로 각광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전철우 회장은 출마를 결심했다.

###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농구협회 회장

전철우





“예전에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해요. 그래야 사회가 선순환이 되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힘이 더해져 큰일도 이뤄낼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전철우 회장의 포부는 특별하다. 꿈나무 체육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생활체육과 동호인들의 농구대회도 계획 중이다. 또한 부산에서도 다양한 3×3 농구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4년의 임기 동안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과의 단결을 도모하고, 부산농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구를 향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는 도시, 얼썬, 건강! 얼썬, 동래!

## 구·군체육회를 가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는 약 30만 명에 가까운 지역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시도를 함께 이어가고 있으며, 생활체육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자 100세 건강 시대의 가장 실제적인 대비라는 기본 모토(Motto)를 따르고 있다. 또한 자연적 환경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 진정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온천천과 건기 종목을 접목 하거나 금강공원과 마안산에서의 해달맞이 체조교실 등을 들 수 있다.







## 장준용 회장의 각오!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동참해 건강한 동래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철학이자 동래구체육회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종목 도입으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험을 살려 동래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침체된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조를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영상 지도를 추진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보급 중이다. '동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하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비롯해 40여 편이 넘는 영상 제작물이 바로 그것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시설과 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래구체육회. 학교를 비롯한 구내 체육시설을 연결하고, 지역 생활거점 기관들과 연계해 동래구의 건강 토착화를 이끄는 이들의 활약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승 트로피만큼 빛나는 '우리'의 가치 모두가 어우러지는 족구의 세계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족구대회 우승  
금정중학교 족구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족구대회와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족구대회에서의 거듭되는 우승으로 부산의 중등부 족구대회는 금정중학교가 싹쓸이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지도교사는 매년 2~3명씩 성인들과도 시합이 가능할 정도로 기량이 좋은 친구들이 꼭 나온다며 학생들에게 공(功)을 돌린다.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고 착해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함께해온 친구들과 선후배들, 팀을 도와준 주위의 많은 분들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오래도록 잘 간직했으면 좋겠고, 졸업생들과의 교류전뿐만 아니라 같이 운동했던 선후배들이 족구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개최

지난 7월 8일(목) 2020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과 의지로 훈련에 매진 해온 대한민국 선수단은 결단식을 통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장인화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를 위해 노력하겠다. 선수들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삼중고’ 올림픽 “철저히 준비, 선수 안전도 金 딸 것”

지난 7월 6일(화) 장인화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 회장)이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1호 지역 체육회장이라는 점은 영광이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악조건 속에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인화 선수단장은 선수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관심과 지원을 다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